

주제:이런 교사가 되었으면...

강의:이정현 목사

우리가 흔히 기독교교육을 말할때에, 그 교육에는 여러 요소들이 있습니다. 교육의 요소로 먼저 교재(내용)가 있습니다. 기독교에서의 교재는 성경인데, 이것은 불변하는 기독교교육의 텍스트입니다. 둘째는 학생입니다. 학생은 교육의 대상이며, 교사는 먼저 자기가 가르쳐야할 대상을 이해함이 필요합니다. 그들의 정서적,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면들의 일반적인 특징을 알아야 적당하고 효과적인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목적입니다. 기독교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고 협의적으로는 그 시간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최종적인 목적은 학생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닮게하는데 있습니다. 교육의 요소, 네 번째는 교사입니다. 준비해서 말씀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은 교수방법입니다. 교수법에는 수십 가지가 있으나, 주로 강의법, 질의응답법, 이야기법, 시청각자료 사용법 등이 있습니다.

이런 제 요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교사입니다. 아무리 교재가 좋고, 학생이 우수하고, 목적이 분명하고, 방법에 대한 지식이 많아도, 교사가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잘못되었으면 그 교육에는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없습니다. 교육의 여러 요소 가운데 제일 중요한 요소가 교사임은 분명하고, 더더구나 기독교교육에 있어서의 교사는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교사는 학생들의 단순한 지적인 부분만 다루는 자들이아니라 영적인 부분을 취급하는 자들이기때문이다.

미국의 휘튼대학에서 기독교교육학을 성공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짐 월호이트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철저히 성경을 기초로하여 기독교교육철학을 세워서 교육학을 가르치는 분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이분이 책을 한 권 내셨는데, “성경을 효과적으로 가르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번역 되었습니다. 성경 교사들에게 아주 유익한 책인데, 월호이트는 이 책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교육의 구성요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이다. 교과과정, 교실, 시설도 중요하나 궁극적으로 높은 수준의 교육을 가능케 하는 것은 교사이다”.

지금 고신대학에서 기독교교육학을 가르치는 현유광 목사는 그의 책, “성경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서 성경교사의 인격을 강조하면서 “교육에 있어서 교사의 인격적 자질이 가장 크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했다.

‘탁월한 교사,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그가 무엇을 어떻게 어떤 목표로 가르치셨는지를 상세히 기록한 책이 한권 있습니다. 매트 프리드만이 쓴 “이렇게 가르치셨다”라는 책입니다. 프리드만은 각 장에서도 계속 일관된 강조를 하지만 마지막 부분에서도, ‘이 시대에 예수님과 같은 교사가 필요하다’고 함으로 교육에 있어서의 교사의 중요성을 말했다.

성경에 교사라는 말이 5회 나타난다. 행13:1-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젓동생 마나엔과 밋 사울이라”. 고전12:28-29-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엡4:11-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딤후1:11-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 구절들에서 엿볼 수 있는 공통점은 교사를 선지자나 사도와

같은 반열에서 취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성경사에서 그리스도의 구속과 교회의 태동을 위한 선지자와 사도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듯이, 교사도 이처럼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계실 때,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는데 이 3대 사역 중 가장 많이 행하고, 중요시 여긴 것이 바로 가르치는 사역이었다. 마지막 지상 명령에서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심으로 교사의 역할을 우리에게 위임하신 것을 볼 수 있다.

여러분은 맥스 드 프리라는 사람을 아실 것입니다. 이 분은 미국 가구업계 1위인, 허만 밀러사의 회장이시며, “리더십은 예술이다” 그리고 “권력없는 리더십은 가능한가?”라는 책으로 잘 알려진 분입니다. 이분은 98세가 되기까지 주일학교 교사로 일을 했답니다. 그가 노환으로 병상에 눕게 되었을때에 병문안 온 사람들에게 이런말을 했답니다. “나는 허만 밀러 가구회사 사장직을 물러날때보다 주일학교 교사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 나의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그는 교사직을 다른 어떤 일보다도 우선으로, 그리고 중요한 하나님의 일로 여겨서 끝까지 충성을 다했답니다. 백화점 왕이라 불리는 존 워너메이커는 대통령으로부터 체신부 장관직을 맡아 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주일학교 교사 때문에 할 수 없다고 거절했다는 얘기는 유명하지 않습니까.

2001년도 기왕 교사로 부름받고, 임명 받았으면, 이런교사가 되었으면 해서 다섯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1. 성경에 능통한 교사

성경교사란? ‘하나님 중심의 세계에서, 성경을 가르침으로 사람들이 자신의 생의 의미를 이해하도록 도와주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행하도록 그들을 도와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성경교사는 성경의 전문가이어야 하며, 능통한 사람이어야 한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슨 질문을 하더라도 성경의 내용과 사상을 명확히 얘기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내용을 파노라마식으로 기억하여 가르치기를 잘 해야하고, 학생들이 상담을 해올 때 말씀으로 분명한 해답을 줄수 있어야 한다. 숲도보고 나무도 볼 수 있는 성경지식으로 학생들에게 풍성한 말씀을 체계적이며 구체적으로 가르쳐야 한다.

성경을 보시면, 말씀에 능통했던 인물들이 나옵니다. 우선 사도행전 18장을 보시면, 에베소의 어떤 회당에서 아볼로라는 사람이 설교를 합니다. 안렉산드리아 출신 아볼로는 성경의 표현을 보면,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듣게 됩니다. 듣다보니까, 아직 부족한 점이 있어서 불러다가, 성경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잘 가르쳐 줍니다. 이 가르침을 받게 된 아볼로는 훌륭한 설교자와 전도자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으로써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학문이 높고 성경에 능통했던 아볼로를 가르쳤던 브리스길라 부부는 더 성경의 전문가가 아닙니까.

예수님이 공 생애를 사실 때, 마귀에게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3가지 시험이 있었을 때 주님은 그때마다 “기록되었으되”라고 하시면서 구약의 말씀으로 원수를 물리치셨습니다. 성경 찾아가지고 물리치신 것이 아니고, 암기하고 있었던 말씀으로 원수를 꼼작 못하게 공격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죄인들에 손에 팔려서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죽은자 가운데서 3일만에 다시 살아 나신다고 예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믿지 못

한 제자들은, 이제 스승, 예수가 죽었으니 희망이 없다고 고향인 엠마오로 내려 갑니다. 가는 길에 슬그머니 한 사람이 끼어서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누시다가,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 하시니라”고 하셨습니다. 이때의 주님은 모세의 율법, 선지자들의 예언서 그리고 시가서를 통틀어 알고 계신 분, 즉 성경에 능통하신 교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은 스테반의 순교이후, 핍박을 피해 흩어졌던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전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빌립의 전도는 말과 혀로만 한 것이 아니었고 표적과 이적이 따라왔습니다. 그리하여 사마리아 성에 대 부흥이 일어 났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주의사자가 나타나서,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고 하셨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까 그 광야에,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되돌아 가고 있었습니다. 이 내시는 병거에서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있었는데, 이게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는 말씀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빌립이 다가가서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라고 물으니,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습니까?’라고 대답합니다. 이때의 지도하는 사람은 선생, 교사를 말합니다. 빌립은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여, 내시로하여금 예수를 믿게 했습니다. 빌립은 이사야의 말씀을 알고 있었고, 알고 있는 그 말씀을 내시에게 가르칠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달에 저희 학교에서 신입생들의 면접이 있었습니다. 신학대학원생들을 뽑는 자리에는 상식적인 성경지식을 묻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사53:5-6). 한 학생에게 “이 성경이 어디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신약에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하도 기가차서, “신약 어디에 있습니까?”라고 물으니, “마태복음 뒷편에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심각한 한국교회의 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여러분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예수님, 그리고 빌립처럼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에 능통한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잘 아는대로,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고, 암기하고, 묵상해야 한다. 다 습득하고 있는 유치한 방법 같아도 성경의 전문가가 되려면 이 방법 밖에 없습니다.

읽고/하루에 3장 내지 5섯장은 읽어야 합니다. 예) 저의 외숙모님은 늦게 예수를 믿은 분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본인의 소원이 나이만큼 성경을 읽는 것이랍니다. 지금 60이 다 되어 가시는 분이신데, 50번 이상을 통독했다고 합니다.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통 빠르기로 쉬지 않고 읽는다면 대략 85시간이 걸린답니다. 매일 8시간씩 읽으면 10일 정도면 다 읽을 수 있답니다. 하루 30분씩 읽으면 약 6개월이 걸리고, 매일 3-4장 정도 읽으면, 1년이 걸린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교사들은 적어도 1년에 한번 정도는 성경을 통독해야 할 줄로 압니다.

예) 어떤 만찬석상에서 교회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있던 한 사람이 목사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최근 베스트셀러인 김용옥 교수의 「노자학강의」를 읽어 보셨나요? ‘아니오’라는 답을 들은 그가 기회를 붙잡았다는 듯 힐난하는 투로 말했습니다. “나온지 다섯주나 지났는데도요? 빨리 서둘러야 하겠습니까”. 이번에는 반대로 목사가 그 신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을 읽어 보셨나요?” 고개를 흔드는 그를 향해 목사가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정

말로 서두르셔야 하겠습니다. 그 책은 나온 지 20세기가 넘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겠다는 교사가 성경을 안 읽는다면, 이제부터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듣고/매 예배때마다 참석하여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테잎을 통해서도 듣고, 방송이나 인터넷을 통해서도 말씀을 많이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 성경을 알수 있고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공부하고/성경을 읽고 듣는 것 만으로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직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진행하는 성경공부나 제자훈련이 있다면 필히 참석하여서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하던 중, 데살로니가를 거쳐, 베뢰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뢰아 사람들은 설교를 열심히 들었을뿐만아니라 들은 말씀을 근거로 공부하였습니다. 사도행전은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보고합니다. “베뢰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삶들보다 마음이 트인 사람들이어서 말씀을 열심히 받아들이고 바울의 말이 사실인지 날마다 성경을 연구했다”(행17:11). 앞으로는 지도자가 교사들에게 PC를 이용하여 공과나 기타 필요한 성경을 체계적으로 교육할 수 있으므로 이런데에도 참여하여 공부해야 한다. 체계적인 성공공부는 본인뿐만아니라 학생들의 영적인 면에도 상당한 유익을 준다.

암기하고/성경 암송은 교사들에게 또다른 유익을 준다. 시편기자가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시119:11)라고 하신것처럼, 암송은 유혹을 이기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외운 말씀은 언제 어디서나 그것으로 묵상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익하다.

묵상하고/ 앞의 네가지 요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다. 묵상은 반추의 과정이다. 반추란 소가 풀을 잔뜩 뜯어 먹은 후 되새김질 하는 것을 말한다. OT에 읽은 말씀을 출근 길이나, 점심 시간후 한가한 시간에 다시한번 생각해 보는 것, 새벽기도 시간이나 주일예배 시간에 들은 말씀을 다시한번 되새겨 보는 것이 묵상이다. 묵상을 통하여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달을 수 있고,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며,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지 알수 있게된다.

위의 다섯가지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해야하고, 순종하겠다는 자세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학생들의 목자들입니다. 목자는 마땅히 양들을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전문가가 되라. 그렇지 않고 가르칠 때, 그것은 “현명한 악마를 키워내는 것”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 2. 예배의 모범을 보여라.

여기에서 우리는 먼저, 예배라는 용어와 모범이라는 말의 의미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예배는 구원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며 예의를 갖추어 그에게 합당한 존경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정의 가운데서, 몇가지 사항을 뽑아볼 수 있는데, 먼저는, 기독교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 받은 자만이 드릴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속 받지 못한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바 아버지여라고 부르며 기도하거나 찬송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 받으실 하나님, 그동안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복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며 예배에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의를 갖추어야 하

는데, 아무렇게나 준비없이 예배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내부적 준비 못지않게 외면적 준비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옷이나 머리카락이나 신발에도 신경써야 하는 것은 마음 가짐이 외부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분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서 그 앞에 예의를 표할 때에는, 그분의 인격, 신분이나 지위에 걸맞는 예의를 표해야 실례가 되지 않습니다. 지고하신 창조주시며,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께 적당한 최고의 감사와 영광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경북궁에 가시면 중화전이라는데가 있습니다. 이곳은 임금의 아침 조회를 열거나 특별한 일에 대한 보고를 받는 장소입니다. 조회가 있는 날이면, 모든 무관들과 문관들이 복장을 갖추어 아래층에 도열해 있고 임금은 중화전에 납시게 됩니다. 대신들은 중화전에 앉아 계시는 용상을 볼 수 없고, 임금 또한 대신들의 얼굴을 잘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 사이에 연락병 역할과 구령을 내리는 역할을 하는 승지가 있습니다. 임금이 왕립하시면 승지가 차렷, 경례를 합니다. 이 구령에 맞추어서 모든 신하들은 비록 임금의 얼굴이 보이지는 않지만, 면전에 계시듯, 예의를 갖추어 큰 절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기독교에 적용시키면, 이것이 바로 예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군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 예의를 다 갖추어,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성경역사와 기독교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곧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신 목적과 구속하신 목적인 우리를 통하여 예배를 받으시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예1) 출애굽의 목적-내 백성으로 가게하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기리라(나에게 경배하리라). 예2) 교회의 제 기능들/교육, 전도, 예배, 구제와 봉사-예배는 교회의 자기표현이다. 예3) 은혜의 수단/말씀과 성례+기도-이것은 곧 예배 가운데 있다.

이렇게 중요한 예배를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떻게 취급하여 왔으며, 어떻게 드렸고,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쳐 왔고, 어떻게 모범을 보여 왔습니까?

그리고 모범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투포스, 또는 미메오마이라고 합니다. 쉽게말해서 자기를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눈길위에 발자국을 똑바로, 바른 방향을 향해 찍어 놓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을 통해볼 때 예수님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모범자이십니다. 정치, 경제, 문화, 종교, 교육 등등의 분야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특별히 교사로서의 모범은 탁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에 관한 것이든 모범은 그리스도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서울대의 교육학 교수이신, 김규현 씨가 어느날 신문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교육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모범보이기이고 두 번째는 상담과 씨클활동이며, 최후의 수단이 체벌이다”. 안 믿는 사람도 이런말을 하고 있다면, 믿는 우리는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아이들은 가르쳐 주는대로 하지않고 보는대로 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배의 모범이라할 때, 예배의 모든 요소에 모범을 보이라는 말이다. 주일성수부터 시작해서, 기도, 찬송, 말씀듣기, 헌금하기, 예배 드리는 마음과 자세까지를 말한다. 교사가 조금 아프거나, 집안의 무슨 일이 있거나, 급하게 누구를 만나야 한다고 주일을 지키지 못한다면, 학생들에게 모범이 되겠습니까? 기도할 때 맨날,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타는 것, 잠잘 곳,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육신의 안일한 것만 잔뜩 구하면서, 어찌 그것이 아이들에게 선한 기도의 모범이 된다고 하겠습니까? 찬송할때도 옆에 사람 다 구경하면서, 열정도 없이, 가사를 생각함도 없이 무미건조하게 부르는 것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있는 아이들에게 모범이 되겠습니까?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주보에 낙서나 하고, 공과 준비를 하거나, 졸거나, 딴 생각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그 일그러진 모습이 학생들에게 모범이 되겠습니까?

현금바구니가 돌아오면, 급하게 이쪽 저쪽 주머니를 디져서 겨우 1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 들고, 그것도 첩피하니까 꼬기 꼬기 접어서, 다리 밑에 앉아있는 거지에게 적선하듯 바구니에 던져 넣으면서, ‘내게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라고 하는 행동이, 학생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교회 선생님들을 보니까 예배시간에 왔다갔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날 제가 입구에 지키고 있다가, 예배당 밖으로 나오는 사람을 보고, 예배 시간에 어디를 가냐고 호통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대답하는 말이, 화장실 간데요. 미리 미리 오줌 싸고 들어가자. 아니면 끝날때까지 참든지. 왜 예배 시간에 움직입니까? 이 동네는 그런 사람 없는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 동네는 촌 동네라서 그런지 이런 교사가 있다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이사왔는지 물어보니까, 반포에서 이사왔나?

여러분, 예배의 의미와 내용과 방법을 잘 알고, 아이들에게 모범을 보임으로 이것을 가르쳐야 한다. 그래야 앞으로 개신교의 미래가 밝아집니다. 저는 최근의 한 자료를 보면서 아주 놀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개신교회에서는 새신자가 교회에 오면, 그 새신자에게 교육을 시키는데, 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교회란 무엇이며 그 기능은 무엇이며,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며, 봉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가르칩니다. 그러반면에 카톨릭에서는 새신자가 오면, 처음에 예배란 무엇인가?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누구에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예배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은혜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개신교 사람들은 딱딱한 교리적인 신자들이 되어서 논쟁하기를 좋아하고 자기가 배운 교리에 맞지 않으면 비판하기를 좋아 한답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로 가게될 때, 자기가 배운 스타일의 교리와 교회 생활하고 맞지 않으면 적응하기가 어려움으로 쉽게 낙심하고 교회를 떠나는 현상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카톨릭은 어디를 가든지 통일된 예배를 가르치고, 교리공부 이전에 먼저 천부께 예배하는 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데 힘을 써고, 이사를 가더라도 인근 성당에 쉽게 적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배학자로 이 얘기를 읽고, 물론 100% 수긍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충격과 도전을 받았습시다.

교사들이여, 모범보이기로, 아이들로 하여금 예배에 승리자, 성공자가 되게하십시오. 그러면 생활도, 인생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 3. 열정적인 교사

언제부터인가 아이들을 사랑하는 열정, 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열정이 많이 식어졌습니다. 일을 하는 자세가 매너리즘에 빠져서 타성에 젖어있고, 적당히 할려고 하고, 할 수 없이 때우기 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 시쯤에, 교사들이 우선적으로 회복해야할 중요한 요소가 적극성과 열정이라고 봅니다.

요사이의 무슨일을 해도 열심히 하면 성공하지 못하고, 죽을 각오로 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요즈음 벤처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을 보면, 밤 낮 없이 일을 하고, 식사도 대충 때우면서, 차 안에서 신문 보면서, 일을 합니다. 돈을 벌고, 회사를 든든히 세워 볼 각오로 전심전력하여 일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몇 년만에 정주영씨만큼 벌었다고 TV에 방영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처럼 죽을 각오로 하나님의 일(교회 일)을 하는 교사가 이 중에 몇 명만 있어도, 2001년도 주일학교가 부흥, 발전할줄로 믿습시다.

교회는 마치 바울처럼 일할 교사를 찾고있는 것입니다. 복음에 적극적이고,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교사 말입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 복음을 전파하고 가

르치는 일에 미친 사람이 되었습니다. 너무 열정적이어서 자기의 못숨까지 아깝게 여기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의 경로를 확인해 보면, 전 아시아와 마케도나, 아가야 지방과 로마까지 복음으로 편만케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지칠줄 모르는 열정으로 가는 곳곳마다 십자와 부활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 민족이 구원 받게 되기를 원한다”. 3차 전도여행때 밀레도 섬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놓고,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쳤다”고 말합니다. 또한,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되겠으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함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장로님들과 헤어지면서, 내가 에베소에 있을 때 ‘3년동안 밤낮으로 쉬지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가르치던 것을 기억하라’고 말함으로 밀레도를 떠납니다. 이런 말씀들을 종합해보면, 바울은 일생동안 복음에 자기의 생명과 열정을 쏟아 부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대구에 제가 아는 한 선생님이 살고 계십니다. 이 선생님은 고등학교 수학선생님이시고, 교회에서는 고등부부장을 맡고 있는 분입니다. 이 선생님은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마다 교회 선생님들과 아이들을 위해 기도한답니다. 그리고 토요일이 되면, 100여명이 넘는 학생들에게는 주일예배 꼭 참여하라고 일일이 전화를 하고, 선생들에게는 준비사항을 점검하는 전화를 한답니다. 그리고 본인이 해야할 일을 해놓고, 혹시 빠지는 교사가 있을지 모르니까, 공과를 항상 준비해 간답니다. 주일에는 누구보다도 일찍가서-교회가 집에서 10리가 넘고, 차도 없음-기도하고, 예배 환경을 점검하고, 학생들이 오면 한 사람 한사람을 안아주고 환영한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열심히 교사가 아니겠습니까?

웨슬리 듀엘의 저서 “열정적인 지도자”에 보면, 하나님의 일에 열정적이었던 많은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소개되고 있는 사람이 존 웨슬레입니다. 웨슬레는 어릴 때 경건한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청년시절에는 거룩한 생활을 위해서 자신을 철저히 훈련시키려 했고, 또한 옥스퍼드 대학에서 홀리클럽을 결성하여 기도에 몰입했으며, 그 이후 2년동안 북 아메리카 지역을 다니며 선교체험도 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부족했던 그가, 어느 사람이 낭독해 주던 마틴 루터의 저서를 듣고, 새로운 탄생의 경험을 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성령 체험을 한 것입니다. 그때가 1738년 5월 24일 이었습니다. 그 이후 그는 성령의 능력으로 53년 동안 지칠줄 모르고, 열정적으로 복음을 위해 헌신합니다. 그는 일생동안 책을 200권 이상을 썼습니다. 자필로 잡지를 편집하기도 했고, 사전을 만들어 내기도 했습니다. 그는 말을타고 영국을 동서로 횡단하여 약 40만 Km를 달렸습니다. 하루 평균 32 Km를 여행했고, 어떤때는 80-96 Km를 말타고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는 일생동안 4만번 정도의 설교를 했는데, 이것은 하루평균 2번 정도이나 어떤때는 하루에 8번까지 설교를 했답니다. 기거동작이 어려웠던 83세때에는 하루에 독서를 15섯 시간을 했고, 86세때에도 하루에 기도를 2-3시간씩 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의 생애에 관해 한마디로 ‘웨슬레는 그 세기의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일에 열정적으로 충성을 다했던 웨슬레처럼, 우리도 이 일에 헌신합시다. 유능한 교사는 사람을 향한 열정, 진리에 대한 열정, 연구와 학습을 향한 열정, 무엇보다 하나님께 대한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 4. 기도하는 교사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땅 위에 이루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라고 교훈 하셨습니다.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교실에 앉아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과 먼 이국땅에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신자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며 권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구하라. 그리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시행하리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교사들은 기도의 응답과 능력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때때로 기도하며,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교사가 정작 기도의 응답을 믿지 못하는 불쌍한 이중 신앙자가 있습니다. 설교를 듣고 있던 학생이, “선생님, 기도하면 정말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까?”라고 물었더니, 선생님이, “글세다. 목사님이 저렇게 핏대를 세우며 얘기하시니까, 믿어줘야 하지 않겠니?”라고 대답 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믿지 못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어느 과학자가 자기 아들이 밥을 먹기 전에 식 기도를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우리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네 기도를 들을 수 없단다”라는 말로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기도의 응답을 믿으십니까? 기도를 많이하던 어느 주교가 있었습니다. 그는 기도할때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런식으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똑 같이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시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늘에서, “오냐! 나다”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 주교가 그 응답을 듣고, 뒤로 벌렁 넘어져 죽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입술로는 수 없이 많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외쳤어도, 한 번도 기도응답의 경험이 없었다는 얘기이고, 지금까지 형식적으로 기도해 왔다는 것을 꼬집는 이야기 입니다.

미국에 어느 교회가 있었는데, 예배당 윗층에 나이트클럽이 있었습니다. 시끄럽고, 추잡하고, 교육상 좋지 않으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나이트클럽에 불이나서 홀라당 타서 망하게 해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클럽에 화재가 나서 잿더미가 되고, 완전히 망하게 되었습니다. 클럽을 경영하는 주인이, 나중에, 목사가 ‘클럽에 불나게 해 달라’고 기도했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목사를 상대로 고소를 했습니다. 법정에서 검사가 목사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해서 클럽에 불이 났다고 생각하십니까?”-“아닙니다”. 변호사가 클럽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목사가 기도해서 불이 났다고 생각하십니까?”-“예, 저는 확신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기도의 응답을 믿는 것입니까?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주님이 약속하셨고, “믿고 구한 것은 받은줄로 알라”고 하셨습니다. 원한을 가진 과부의 예를 들면서, 주님은, ‘하물며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고 하시면서 반드시 들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의 내용을 제한하지 마시고 무엇이든 기도하는 교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앤드류 머레이는 “With Christ”라는 그의 책에서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좁은 소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나,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자신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경제적 문제와, 인간관계의 문제와, 이성간의 문제와, 죄의 문제, 교회의 부흥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사소한 문제들로부터 큰 문제에 이르기까지, 기도 제목을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지혜를 얻기 위

해도 기도를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교회 집단의 문제나 학생들의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또한 기도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4장과 12장 사건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회의가 길어지고 말만 무성하다고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별때처럼 달려들어, 집단으로,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을 쓰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힘쓰면 하나님이 그 문제와 그 사람을 만져 주시는 것입니다.

중국선교회의 창시자 허드슨 테일러가 버터 플라이워호를 타고 선교여행을 가려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배가 출항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자, 허드슨 테일러는 선장에게 물었다. “왜 배가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선장이 말했다. “이 배는 바람의 힘으로 가는 배인데 지금 바람이 전혀 불지를 않아 닻을 걷어올리고 바람이 불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기 전에는 이 배는 출발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테일러는 말했습니다. “이 배 안에 그리스도인이 4명이 타고 있는데 우리가 힘을 합하여 바람이 불어오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닻 내려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선장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리고는 배 아래칸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전심으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문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서, 문을 여니 “아직까지 여기에서 기도하고 계셨습니까? 제발 기도 좀 그쳐주세요.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서 큰일 났습니다”. 기도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결코 기도하는 수준 이상으로 잘 가르치는 교사가 될 수 없습니다. 기도는 그 사람의 영적 온도에 입니다. 기도 이상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자라야 우리가 자랄 수 있고 아이들도 자랄 수 있습니다. 기도의 폭이 넓어야 믿음의 폭도 넓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더욱 기도하는 교사가 됩시다. 기도로 학생들을 다스리시기를 바랍니다.

## 5. 비전을 줄 수 있는 교사

기독교를 비전의 종교라고 하는데, 그것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항상 미래를 향해 발전적으로 전진하는 까닭에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께서 지금도 남녀노소에게 하는 큰일은 비전을 주시는 일입니다. 비전이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한다.

진정한 교사란 아이들의 비위를 맞추어 주는 교사가 아니라, 그들이 나가야 할 삶의 목표, 어떻게 인생을 보람되고 가치있고, 멋있게 살아야 할 것이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의 젊은이들은 ‘흔들 수 있는 깃발과 목숨을 걸 대상’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없으니까 번지 점프 같은 것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인생의 비전과 소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비전을 갖고, 학생들에게 비전을 줄 수 있는 교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 종교개혁의 주도자였던 마틴 루터가 아이스나흐라는 곳에서 중학교를 다닐때였습니다. 그 학교에는 나이가 많은 트레보니우스(Trebonius)라는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교실에 들어올때마다 어린 학생들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하였습니다. 아이들은 인사를 받을때마다 송구스러워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날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자기들이 몸돌바를 모르겠으니 인사를 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트레보니우스는 “너희들 가운데 장차 이 나라를 이끌어 갈 지도자가 나올 것이므로 내가 인사를 정중하게 하는 것은 옳다”라고 했습니다. 스승은 아이들에게 행동과 말로 비전을 심어 줌으로 그 밑에서 루터와 같은 인물

이 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 미국 트리니티신학교의 길버트 빌지키언(Gilbert Bilezikian) 교수가 있었습니다. 이 교수는 강의 전에 사도행전2:40-47절까지를 읽어 주면서 학생들에게 도전을 주었습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에는 성도들이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고 서로 물건을 팔아 힘든 사람을 도와 줄 정도로 서로 사랑했고 늘 함께 밥을 먹으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고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삶을 살았던 그런 교회가 있었다. 그 교회로는 끊임없이 사람들이 몰려들어 절망에서 소망을 찾았다. 2000년 전 예루살렘에 그런 교회가 있을 수 있다면 왜 1970년대 시카고에는 그런 교회가 생길 수 없는가? 그때의 하나님과 지금의 하나님이 달라지셨는가? 그분의 능력이 줄어 들어서 그런가? 절대 그렇지 않다.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쁜 마음으로 순종한다면 우리도 그런교회를 이 땅에 세울 수 있다. 젊은이들이여 여러분의 모든 것을 바쳐, 그 비전을 위해 헌신할 사람은 없는가?

그러한 메시지를 듣자 가슴에서 불이 일어나는 것과 같은 감동을 받은 한 젊은 신학생이 있었습니다. 그가 곧 빌 하이벨스였습니다. 하이벨스는 그런 살아있는 교회야말로 자신의 인생 전체를 걸어도 아깝지 않다는 결심을 하고 빌지키언 교수를 찾아가 자기가 하겠다고 도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후 25년이 넘도록 지금까지 하이벨스 목사의 멘토가 되어 끊임없이 초대교회의 비전을 상기시켜 주고, 힘을주고, 조언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시카고의 월로우크릭커뮤니티 교회는 20000명이 넘는 신자들이 예루살렘교회의 모범을 본받아 교회의 제 사명을 잘 감당하며 있으며, 전 세계 교회에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음 세대에게 크고 놀라운 비전을 주는 것보다 더한 선물은 없습니다. 학생들에게 비전을 심어 주는 교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 결론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혼란스러워도,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바른 기독교인 교사가 있을 때, 그 사회와 교회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새해 벽두에 이 세미나에 참여하신 여러분, 2001년도에는 이런 교사가 되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함으로 성경에 능통한 교사가 되시고, 예배에 모범을 보이시고, 열정적으로 일하는 교사, 무엇보다 기도하는 교사, 그리고 학생들에게 크고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제시하는 교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교사만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것이고, 교회와 교회학교가 부흥발전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될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 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주제:이런 교사가 되자!**

**강의:이정현 목사**

**장소:동천교회**

**일시:2002. 7. 11(목). 오후7:30-9:00**

우리가 흔히 기독교교육을 말할 때에, 그 교육에는 여러 요소들이 있습니다.

- .교재
- .학생
- .목적
- .교사
- .교수방법

이런 제 요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 . 짐 월호이트 교수-“성경을 효과적으로 가르치는 비결”
- . 현유광 목사-“성경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 . 프리드만-“이렇게 가르치셨다”

성경에 교사라는 말이 5회 나타난다. 행13:1, 고전12:28-29, 엡4:11, 딤후1:11)

예수님의 3대 사역

여러분은 맥스 드 프리-“리더십은 예술이다”, “권력없는 리더십은 가능한가?”

2002년도 기왕 교사로 부름받고, 임명 받았으면, 이런 교사가 되었으면 해서 다섯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1. 성경에 능통한 교사

성경교사란?

성경교사는 성경의 전문가이어야 하며, 능통한 사람이어야 한다.

성경을 보시면, 말씀에 능통했던 인물들이 나옵니다.

- . 사도행전 18장/
- . 예수님의 공 생애/
- . 누가복음 24장/
- . 사도행전 8장/

그러면 성경에 능통한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잘 아는대로,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고, 암기하고, 묵상해야 한다. 다 습득하고 있는 유치한 방법 같아도 성경의 전문가가 되려면 이 방법 밖에 없습니다.

위의 다섯가지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해야하고, 순종하겠다는 자세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학생들의 목자들입니다. 목자는 마땅히 양들을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전문가가 되라. 그렇지 않고 가르칠 때, 그것은 “현명한 악마를 키워내는 것”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 2. 예배의 모범을 보여라.

여기에서 우리는 먼저, 예배라는 용어와 모범이라는 말의 의미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예배는 구원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며 예의를 갖추어 그에게 합당한 존경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역사와 기독교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곧 예배입니다.

- . 창조와 구속의 목적/
- . 교회의 제 기능들/교육, 전도, 예배, 구제와 봉사
- . 은혜의 수단/

이렇게 중요한 예배를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떻게 취급하여 왔으며, 어떻게 드렸고,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쳐 왔고, 어떻게 모범을 보여 왔습니까?

그리고 모범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투포스, 또는 미메오마이라고 합니다.

- . 서울대의 교육학 교수이신, 김규현

그리고 예배의 모범이라할 때, 예배의 모든 요소에 모범을 보이라는 말이다. 주일성수부터 시작해서, 기도, 찬송, 말씀듣기, 헌금하기, 예배 드리는 마음과 자세까지를 말한다.

교사들이여, 모범보이기로, 아이들로 하여금 예배에 승리자, 성공자가 되게하십시오. 그리하면 생활도, 인생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 3. 열정적인 교사

언제부터인가 아이들을 사랑하는 열정, 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열정이 많이 식어졌습니다. 일을 하는 자세가 매너리즘에 빠져서 타성에 젖어있고, 적당히 할려고 하고, 할 수 없이 때우기 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 시쯤에, 교사들이 우선적으로 회복해야할 중요한 요소가 적극성과 열정이라고 봅니다. 교회는 마치 바울처럼 일할 교사를 찾고있는 것입니다. 복음에 적극적이고,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교사 말입니다.

- . 이 청일 선생님은 고등학교 수학선생님이시고, 교회에서는 고등부부장을 맡고 있는 분입니다.

. 웨슬리 듀엘의 저서 “열정적인 지도자”에 보면, 하나님의 일에 열정적이었던 많은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소개되고 있는 사람이 존 웨슬레입니다.

### 4. 기도하는 교사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땅 위에 이루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라고 교훈 하셨습니다.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교실에 앉아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과 먼 이국땅에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신자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며 권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구하라. 그리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시행하리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교사들은 기도의 응답과 능력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자신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경제적 문제와, 인간관계의 문제와, 이성간의 문제와, 죄의 문제, 교회의 부흥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사소한 문제들로부터 큰 문제에 이르기까지, 기도 제목을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지혜를 얻기 위해서도 기도를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교회 집단의 문제나 학생들의 문제가 생겼을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또한 기도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4장과 12장 사건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회의가 길어지고 말만 무성하다고 해결되는 것은 결코아니라,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별때처럼 달려들어, 집단으로,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

힘을 쓰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힘쓰면 하나님이 그 문제와 그 사람을 만져 주시는 것입니다.

중국선교회의 창시자 허드슨 테일러가 버터 플라이워호를 타고 선교여행을 가려던 때였습니다.

우리는 결코 기도하는 수준 이상으로 잘 가르치는 교사가 될 수 없습니다. 기도는 그 사람의 영적 온도계입니다. 기도 이상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자라야 우리가 자랄 수 있고 아이들도 자랄 수 있습니다. 기도의 폭이 넓어야 믿음의 폭도 넓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더욱 기도하는 교사가 됩시다. 기도로 학생들을 다스리시기를 바랍니다.

## 5. 비전을 줄 수 있는 교사

기독교를 비전의 종교라고 하는데, 그것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항상 미래를 향해 발전적으로 전진하는 까닭에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께서 지금도 남녀노소에게 하는 큰일은 비전을 주시는 일입니다. 비전이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한다.

. 종교개혁의 주도자였던 마틴 루터/

. 미국 트리니티신학교의 길버트 빌지키언(Gilbert Bilezikian) 교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다음 세대에게 크고 놀라운 비전을 주는 것보다 더한 선물은 없습니다. 학생들에게 비전을 심어주는 교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 결론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혼란스러워도,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바른 기독교인 교사가 있을 때, 그 사회와 교회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 세미나에 참여하신 여러분, 2002년도에는 이런 교사가 되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함으로 성경에 능통한 교사가 되시고, 예배에 모범을 보이시고, 열정적으로 일하는 교사, 무엇보다 기도하는 교사, 그리고 학생들에게 크고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제시하는 교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교사만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것이고, 교회와 교회학교가 부흥발전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될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 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